

<div>2026년 7월, 출범 확정</div> <div>제물포구·영종구</div> <div>서구·검단구</div>		<div>보도자료</div>		<div>이제는 인천입니다</div> <div>2025 APEC INCHEON</div>
		배포일자	2024년 6월 20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재외동포협력 기획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총괄팀장 담당자 	안성기 ☎440-1521 박인준 ☎440-1522
	투자유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류협력팀장 담당자 차세대네트워크팀장 담당자 	신소영 ☎440-1526 이정만 ☎440-1527 오혜원 ☎440-1531 김세은, 권혜미 ☎440-1532, 153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재외동포 친화도시 조성 잔걸음

- 지원 협력 제도 마련하고 한인단체와 접촉 늘려 네트워크 강화 -
- 재외동포 행사 유치 및 대규모 한상대회 참가하여 투자유치 박차 -

인천시가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세계 한인들의 수도이자 본국활동의 거점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올해 국으로 확대(2024.1.8.,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3.12.29.) 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및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성과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는 그간 상대적으로 협력이 없었던 국내·외 한인 단체와 접촉을 늘리며 한인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미국 최대 한인상공인 단체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경제협력 등을 위한 MOU를 체결(2023.10.10.)했고,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단체(71개국, 150개 지회)인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한인 비즈니스 허브 육성 및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MOU’ (2024.5.14.)를 체결했다.

또한, 재외동포들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인천시 관내 기업의 해외수출 확대 등 경제교류 증진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한국과 접점이 부족한 재외동포 차세대(1.5 ~ 4세대)를 대상으로 인천을 알리는 한편,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나선다.

먼저, 7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로 나눠 진행되는 「202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재외동포청 주최)에서 차수별 일정 7일 중 3일간 인천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국내외 청소년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세계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행사다.

시는 교육청과 함께 OT 및 개막식, 인천 관내 학교 방문 및 교류, 산업 시설 견학 및 개항장 투어 등을 지원해, 전세계의 재외동포 차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천시의 역사·문화·첨단기술·산업 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제22기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세계한인무역협회 주최)이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39세 미만의 국내·외 차세대 경제인 150여 명이 미래 산업 및 인공지능(AI) 교육, 관내 스타트업 기업과 네트워킹, 인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시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를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 등 약 150명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10월 중에 열리는 재외동포청 주관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 주관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인천시 홍보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와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킹 등 지역 내 수출기업 연계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윤현모 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시민들의 염원으로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하고 그간 전담조직 신설, 관련 제도 마련 및 주요 한인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숨 가쁘게 달려 왔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세밀한 인천형 재외동포 정책을 실현하여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브리핑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 ‘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